

분과 5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사회 : 김은정(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 사업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노선주(프랑스 부르고뉴대학교)

서론

한국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한 바 있다. 내용은,

- ◆ 전년(123억 원) 대비 약 2배(236억 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1년 전 세계 43개국 1,800개교의 한국어교육 지원 목표
- ◆ 13억 인구의 인도,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인 러시아, 잠재력이 큰 베트남에서 한국어 채택 및 교육과정이 승인됨에 따라 신남·북방 지역 집중 지원
- ◆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중급 교재 및 맞춤형 교재 개발 착수
- ◆ 현지 우수대학 내 교원양성과정 개설 확대(14개 과정)로 우수 교원 확충 등이다.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1999년) 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는,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중에서 프랑스의 한국어 채택사업의 골자와 프랑스어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프랑스의 한국어 채택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면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식 외국어 과목(LV A/B/C) 채택, 한국어반 개설 등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지 언어교육과정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데 목적을 가진 교재 제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 프랑스 내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한국어 교사 : LVB, LVC, 아틀리에 꼬레앙

채택 사업의 지원 근거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이다.

두 번째는, 한국어반 학생지원이다.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에 근거한다.
네 번째는 한국어 교사 및 교육 행정가 지원이다.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한국어 보급 지원에 따른 채택 확대와 한국어반 개설과 지속적 증가를 볼 수 있다.

한국어 채택사업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정식 외국어 과목 (LV A/B/C) 채택을 목적으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 조성지원을 근거로 두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국어 채택학교 지원, 한국어반 학생지원,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한국어 교사 및 교육 행정가 지원에 있다.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8 : 프랑스 중, 고등학교 내 한국어 시험반 운영 시작
- 2008 : 루앙 카미외 생상스(Camille Saint-Saëns) 중-고교 한국 아틀리에 시범 운영 시작
- 2011 : 프랑스 고등학교 정규 한국어 수업(제3외국어) 최초 개설
 - 보르도 프랑소와 마장디(François Magendie) 고교
 - 파리 빅토르 뒤리(Victor Duruy) 고교, 정규 연합 수업
- 2015 : 프랑스 중학교 정규 한국어 수업(제2외국어) 최초 개설
 - 파리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중학교
- 2017 : 프랑스 바칼로레아 한국어 정규 과목(제 1/2/3 외국어) 채택
- 2017 :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Section Internationale coréenne) 신설
 - * 2020.12월 기준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 초, 중등학교 수 : 총 45 개교
 - 한국어 정규 수업(제 2,3 외국어, 한국어 국제섹션) : 21개교
 - 한국 아틀리에 : 24 개교

필자가 머물고 있는 프랑스 부르고뉴-프랑슈 콩테 지역의 한국어 보급사업을 살펴보기로 하다.

- 2006 : 디종한글학교 설립
- 2014 : 케트니, 플롱비에 레 디종 농업고등학교 LV3 채택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및 수원농생명고등학교 직업교류 특성화 수업 추진
- 2015 : 롱비 중학교 아틀리에 꼬레앙 수업 도입
디종시, 코트 도르 지자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도입
- 2016 : 샤를 드 골 국제고등학교 아틀리에 꼬레앙 및 자매결연
부르고뉴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수업 개설
- 2020 : 에콜 드 코메르스 BSB 한국어 개설
- 2022 : 프랑슈-콩테 대학교 한국어 개설

한국어 보급사업이 시작된 후, 2019년 바칼로레아 개혁은 1개교 외국어 교육 과목 제한으로 난관에 부딪힌다. 프랑스 학생이 보통 3개 외국어까지 배울 수 있었던 반면 1개학교 선택과목 제한으로 한국어의 보급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일단 프랑스 바칼로레아 개혁 전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II. 2019년 프랑스 바칼로레아 개혁 전반 내용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해 시작되어 약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프랑스 대학입학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가 2018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황제로 재위한 제1제정시 시험의 모습이 확립된 후로 2018년 개편까지 단 한 번도 주요 골자가 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지키던 바칼로레아의 개편에 앞서 마크롱은 “바칼로레아가 현 대학 교육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편을 단행했다.

1. 지식, 기술 및 문화 공통 과정은 무엇인가?

지식, 기술 및 문화 공통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과 관련된 공통교육과정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의 집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본 교육과정은 5개 영역으로 조직된다. 평가는 2, 3, 4 교육주기가 끝날 때 이루어진다. 자녀의 수행 능력 발달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명시된다. 중학 졸업 학위 브르베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

▶ 지식, 기술 및 문화 공통 과정 5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고와 의사 소통을 위한 언어 : 프랑스어, 외국어 및 지역 언어, 컴퓨터 언어, 미디어, 예술 및 신체를 배운다.
 - 학습 방법 및 도구 : 정보 및 문서, 디지털 도구, 프로젝트 관리 및 학습 조직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운다.
 - 사람과 시민의 훈련 : 사회 생활, 집단 행동, 시민권에 대해 배운다.
 - 자연 및 기술 시스템 : 호기심, 관찰 감각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접근을 배운다 .
 - 세계와 인간 활동의 표현 : 시간과 공간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적 생산물을 해석하고, 현대 사회 세계를 이해한다.

학생의 평가는 교사가 수행한다.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부모는 자녀 평가의 목적, 형식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는 동일하고 학생의 학습 발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의 현재 교육 주기에 대한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다. 각 주기별 첫 번째 해에 시행하는 종료 교육 주기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전년도 종합평가 취득한 증명서 (구급 훈련, 교통 안전 증명서, ‘수영 지식’ 학교 증명서 등) 공통 기반의 5 개 영역에 대한 숙달 수준은 4 단계에 따라 각주기가 끝날 때 평가된다. 불충분 / 약함 / 만족스러움 / 아주 좋음으로 나눈다.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III. 프랑스의 시민교육, 직업교육, 언어교육의 통합

2019년 프랑스 초 중등 교육과 바칼로레아 개혁에 따른 내용 중 프랑스어 교과목을 통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교육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¹⁾ 문화대국, 문화강국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프랑스는 프랑스어

1) 프랑스어 과목의 명칭을 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라고 명명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에는, 외국어 Langue étrangère라는 명칭이 없다. 국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 뿐 아니라 교과목 전체 내용을 통해 삶을 통찰하며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시민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 문화를 형성하고 쓰기 및 구두 표현, 읽기 및 해석에 대한 기본 기술을 통합한다”는 목적에서도 보듯이 프랑스어 교육은 언어와 문학 차원에서 프랑스어를 바라보지 않는다.²⁾ 대한민국 국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³⁾ 프랑스에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 즉 프랑스어를 익히기 위한 도구로서 프랑스어 교육 뿐 아니라 인문적 교양과 사고력, 시민 사회적 능력을 함양하는 텍스트를 분석, 비판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프랑스어 과목 교육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1.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계속해 언어를 가르치고, 정기적 연습을 통한 다양한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연습을 한다.
2. 학생들이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예술분야에 열린 자세를 갖고, 다양한 지식과 사회에 뿌리를 둔 문학의 이해를 통해 일반 문화 상식을 갖도록 한다. 문학과 문학사를 통해 분석 분야의 학문적지식을 확고히 한다.
3. 학생들이 형식, 작품 및 텍스트 접근을 통해 감수성, 창의성을 키우는 풍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명확하고 탄탄한 참고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적분야를 최대한 활용한다.
4. 학생들의 미적 감각을 훈련시키고 독서에 적응하고 분석과 해석을 위한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취향을 고취시킨다.
5. 학생들의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심화하고 실행하여 서면 및 구두로 개인적 성찰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펼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읽거나 들은 연설의 논증 전략을 분석할 수 있다.
6. 사서 교사와 협력하여 정보 및 문서 연구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권장한다.

프랑스 고등학교 현대언어 과목의 필수 목표는 최근 몇 년간 구술 능력 향상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술 능력과 동시에 문서 등 쓰기 능력 향상이 서로 보완되어 발전한다.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모든 의사 소통 상황에서 이 두가지 능력이 서로 보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과가 구성된다. 현대 외국어 및 지역 언어(LVER)는 학생들이 언어를 통해서 더욱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구두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설득하며, 토론하고, 글로 설명하고, 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대 언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

어/외국어 배타적, 차별적 개념이 아닌 보편적인 언어 교육으로, 자국어를 나타낼 때도 프랑스어란 명칭을 쓴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 교육과정에 보편적인 일이다. ‘국어’라는 명칭은 과거 식민주의의 잔재로 현재 전세계에서 ‘국어’라는 교과목을 쓰는 나라는 한국, 일본 뿐이다. 국사라는 과목 명칭이 한국어로 바뀌었듯이 국어라는 명칭 또한 한국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어교육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모국어 교육’이고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는 외국어 교육’이다라고 명명하고 있다.

2) 프랑스어 1학년 일반계와 테크노계열 프랑스어 교육과정

https://cache.media.education.gouv.fr/file/SP1-MEN-22-1-2019/93/0/spe575_annexe2_1062930.pdf, "la constitution d'une culture personnelle, la consolidation de leurs compétences fondamentales d'expression écrite et orale, de lecture et d'interprétation, dans une perspective de formation de la personne et du citoyen."

3) https://ceri.knue.ac.kr/pds/2015_01_language.pdf, 국어과 교과과정 :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위 세가지 목표에서 보듯이 국어교과 목적이 언어적이고 문학적 차원에서 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프랑스어 1학년 일반계와 테크노계열 프랑스어 교육과정 Programme de français de première des voies générale et technologique https://cache.media.education.gouv.fr/file/SP1-MEN-22-1-2019/93/0/spe575_annexe2_1062930.pdf

기 위해 지식을 동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 된다.

특히, 프랑스의 현대 언어 교육과정은 ‘언어 및 의사 소통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배우는 언어의 지리적, 문화적 영역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새로운 세계와 공간을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실제 문서(비디오, 녹음, 텍스트 및 이미지)를 통해 말하기

이를 위해, 프랑스의 현대 언어 교육과정은 “행동지향적 접근 방식”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는 의사 소통 상황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둔다. 현대어 교과 과정은 무엇보다도 외국어나 지역어로 최대한 의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프랑스 현대 언어 과목에서 특이사항은 바로 “실제 문서(비디오, 녹음, 텍스트 및 이미지)를 통해 말하기의 체계적인 구두연습을 하며 쓰기 연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안정시키고 풍부하게 하며 상호보완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발간되는 모든 현대언어 교재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 문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음 사이트는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디지털화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도와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교재들을 올려놓는 사이트 <https://www.lelivrescolaire.fr/page/6422394>이다. 현대언어 A 영어과목 고등학교 교재를 살펴보면 오디오 비주얼 도구들이 잘 나열되어 있다. 4000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며 250000명의 교사와 이백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교재 사이트는 프랑스 전교과목 중 주요 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어, 역사, 지리, 역사-지리-시민도덕,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과목들의 주요 교육과정을 담은 교과서들이 디지털화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대 언어의 다양한 과목 중 프랑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영어와 스페인어 과목이 탑재되어 있다.

각각 과목은 초등-중등-고등 과목별 사이클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영어와 스페인어의 경우 기본 교재와 워크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와 한국의 현대 언어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실제 문서(비디오, 녹음, 텍스트 및 이미지)가 다양하고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5년 프랑스어 전공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권 문화, 프랑스어 회화 교과서를 보면 실제 문서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프랑스 현대 언어 교재에서는 해당 언어 국가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실제 문서를 통해 다룸으로써 교실을 벗어나 현실에서 언어를 접했을 때 괴리감을 좁히려 한다. 예로, <르 리브르 스폴레르> 사이트의 영어 과목 중학교 6학년 1과와 2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6학년 12세의 흥미를 끌만한 ‘해리포터’ 포스터를 통해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포스터의 내용을 설명하는 오디오 파일을 들으면서 학교의 모습과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주도성과 자율성을 지닌 프로젝트 수업

학습목표인 1. 자신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2. 사진과 색을 설명하기 3. 개인적인 질문을 묻고 답하기에서 시작해 제1미션 학교 생활을 위해 쇼핑하러 가기, 제2미션 시 쓰기의 두가지 미션을 부여받는다.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창작은 물론 저작물을 직접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현대언어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및 정보 교육과 언어 교육이 서로 교차해 만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통해 자율성 개발에 기여하고, 시민성을 길러주며 정보 교육을 촉진한다.’ 동시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매체인 다양한 디지털 소스 등을 이용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유럽공통어학 기준에 따라 각각의 실행 목표가 함께 제시되어 있고, A2 과정에서 보듯이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는 것은 프랑스식 사고 성찰 교육의 핵심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접근 방식은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팀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통해 사고의 심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어학 수행 능력

	LVA	LVB	LVC
Seconde (rappel)	B1-B2	A2-B1	A1-A2
Cycle terminal	B2	B1	A2-B1

2. 문화 및 상호문화 교육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화자들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언어의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언어 간 의사 소통은 더욱 심오한 차원을 겨냥한다. 즉 한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재적인 언어 학습의 층위를 통해 규칙이나 관습에 의해 지배되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학습을 뛰어넘어 체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는 학습의 가치의 대부분이 각 언어의 문화적 뿌리를 점점 더 철저하게 탐구한다. 따라서 현대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차원의 풍요로운 타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문명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접하며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외국어 및 지역어의 기술의 점진적 습득 과정을 이해, 표현, 상호 작용 및 중재 능력의 언어적 접근을 통해 보았으면 고등학교 마지막 주기의 교과과정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주제는 <기초적 행동과 움직이는 세계 Gestes fondateurs et mondes en mouvement>라는 대주제 아래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현대 외국어 및 지역어에 따라 세분화된다. 그리고 각 언어의 역사를 탐색하고 현재 언어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문화 현상을 분석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적 행동과 움직이는 세계 Gestes fondateurs et mondes en mouvement>는 각 언어별로 8개의 축으로 구성되며 각 언어에 고유한 문화적 뿌리는 존중하며 다양한 수준에 따라 재편된다. 많은 내용들 중, 교사는 목록에 있는 8개 축 중 6개를 골라 2년 동안 가르치며 순서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고른 축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시퀀스(세강스, 단위)를 통해 수업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언어교육 과정의 8개의 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모든 주제는 목표 언어의 지리적 배경과 역사, 문화를 긴밀히 반영하고 이 중 몇가지 키워드를 사용해 교과과정을 구성한다. 보통 각 학교의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학생이 2개 내지 3개의 언어를 통해 주기의 학년 동안 적어도 각기 언어가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한다.

현대 언어 교육과정의 축

1) 정체성 및 교류

각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생활의 역동성 안에서 세계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양성을 조장합니까 아니면 위협합

니까? 특수성에 대해서 확정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글로벌 시민성’을 위해 지역 또는 개인의 특수성을 변형합니까?

‘이동성(지적, 물리적 등)’은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고 접촉, 교류, 파트너십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문화적응, 사회적통합, 사회적응, 특수성 포용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이동성은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가정한다. 국경 개방 혹은 폐쇄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지역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갈등과 긴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국경’ 혹은 ‘경계’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역사적, 문화적, 언어학 등)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학생들은 특히 다른 집단(세대, 사회집단, 이웃, 인종 등) 사이의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경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첫 번째 축인 정체성 및 교류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 : 국경 / 갈등 / 연락처 / 계토 / 이주 / 망명 / 접대 / 법률 / 망명 / 문화적 충격 / 문화적 및 / 또는 언어적 이해력 / 국경 /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연대 / 범법 / 보호주의 / 이동성 / 사회적 강등 / 사회적 상승 / 여행 / 풍경의 변화 / 관광 / 리셉션 / 중재 / 대화 / 다양성 / 공유 ...

2) 사적 공간 및 공공 공간

문화, 신념, 전통에 따라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그려지며 각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되나? 사적인 공간(집)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리, 시선, 손님 등)로 열린다. 사적 및 공공 공간의 다양한 구성, 이용 방식 및 변화 모습을 학습하며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오랫동안 사적 공간에 국한되어 공공영역(정치적, 직업적, 미디어, 사회적 접근)이 여전히 현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다. 가족 내 역할의 재분배는 이런 해방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어떻게 개인 및 공공 공간(가족, 사교 공간, 직장 등) 내의 변화가 작동하고 있는가? 사용되는 언어 자체(속어, 기록물 등)도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키워드 : 성 평등 / 가정법 / 교육 / 이동의 자유 / 해방 / 다양성 / 거리 / 시장 / 마을 광장 / 주택 / 재택 근무 / 공간 / 종교적인 ...

3) 예술과 권력

예술과 권력의 관계는 서로 다른 시기에 연구된 각 지역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권력은 항상 예술과 예술가에게 의존하여 기념, 합법화하고 강화되었다. 작가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에 의존할 때 권력에 대한 도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예술과 권력의 관계는 다양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예술은 과연 권력의 시녀인가? 권력? 권력이 예술에 기여하는가? 예술이 권력의 대척점이 될 수 있는가? 예술은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인가? 창조의 자유와 다양한 제약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키워드 : 건축(주거, 기관 건물 등) / 회화(초상화,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 음악(오페라, 찬양가, 노래) / 문학(사과, 풍자, 봉헌) / 영화(선전 영화, 애국 영화) / 공식 미술 / 반문화 / 지하 / 참여예술 / 저항 / 아방가르드 / 포스터 / 캐리커처 / 스트리트 아트 / 검열 등

4) 시민권과 가상 세계

연구된 각 지리적 영역 내에서 시민과 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며 이러한 관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는가? 디지털화되고 초연결된 세상은 어떻게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변형하고 시민과 권력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새로운 가상 공간은 정보 공유, 지식에 대한 접근 및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진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의 대량 사용은 개인적 측면(정보 위계화의 어려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가상 참여로 인해 현실 참여가 줄어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지털 발자국이 영구적으로 남고, 자폐성, 새로운 사회 지표)으로 남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집단지성이 새로운 협업공간(공동백과사전, 위키, moocs, 웨비나, SNS등)이 생겨 겉으로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키워드 : 가짜 뉴스 / 소셜 미디어 / 미디어 리터러시 / 가상 결제 / 개인 데이터 / 인공 지능 / 위키 / 참여 민주주의 / 인터넷 검열 및 통제 / 사이버 괴롭힘 / 표현의 자유 / 신원 도용 / 조작 / 블로그 / 포럼 / 재택 근무 / 내부 고발자 등

5) 허구와 현실

각 국민 집단이 물려받은 역사적, 사회적 또는 예술적 모델은 무엇이며 어떤 모델을 찾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윤리적, 미적, 정치적 모델을 재구성하는가? 실제든 허구든, 글이든 구두이든, 이야기는 한 개인의 문화 유산을 이루는 기초이며 집단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문명의 기초를 구성하고 때로는 문화를 초월하는 신념, 신화 및 전설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과거의 인물이 여전히 영감과 창조의 원천인가? 현대의 우상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 하는가? 상상의 세계는 현실 세계에 대한 성찰을 불러 일으키며 모든 사람에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실이 어떻게 허구를 일으키고, 허구가 어떻게 문명을 재조명하여 문화 영역에서 현실을 바꾸는가?

키워드 : 유토피아 / 디스토피아 / 문학 / 신화 / 전설 / 신념 / 과학 소설 / 영웅 / 국가 감정 / 슈퍼 히어로 / 수호인물 / 기념물

6) 과학적 혁신과 책임

연구된 각 지역은 현재의 기술 및 과학적 격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과학적 진보는 인류를 위한 매우 발전적인 발전을 이루지만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심지어는 세계 여러 지역의 천연 자원 고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낳는다. 이렇게 과학적 혁신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진보 윤리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합니다. 연구자들은 과연 발견과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공공 영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가? 기업은 기술 혁신과 관련된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새로운 소비 방식을 채택하며 매일 답을 찾으려 한다. 과학자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축에서는 관련한 문화 영역에서 위의 사실들을 관찰하고 타인과의 유사점 혹은 특이점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키워드 : 유전 연구 / 백신 / 로봇 / 복제 / GMO / 나노 기술 / 재생 가능 에너지 / 교통 / 친환경 시민 / NGO / 공간 정복 / 재활용 / 카풀 / 인구 과잉 / 직장 내 소외 / 생물 다양성 / 바로 거래 / 유기농 / 녹색 성장 / 오염 / 종파적 이탈 / 군비 경쟁 / 동원..

7) 다양성과 사회통합

연구된 각 지역에서 점점 다양해지고 개방된 사회의 발전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현대언어는 점점 더 국제 사회에서 사회적 통합과 결속을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주어진 언어 영역 내의 문화적 다양성 또는 문화적 영역 내의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고 상호문화 혹은 다문화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

도록 한다. 또한 다른 형태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대 간 관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사회적 범주 간 관계를 조건화하는 문화적 요소는 무엇인가? 다양성과 사회통합 문제는 예술, 과학, 법률, 지정학, 사회학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키워드 : 장애인 / 사회통합 / 이동의 자유 / 차별 / 세대 / 소수자 / 공식 언어 혹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 / 방치 언어 / 평등 / 해방 등

8) 영토와 기억

집단 유산은 지리적 영역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전달되니까?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으로 중요한 랜드 마크(날짜, 시대, 장소, 사건, 시간적 진화에서 포착된 공간, 상징적 인물, 역사적 인물 등)을 제공하며 우리가 건설 및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집단 유산과 기념은 개인 및 집단적 기억을 개발하고 표현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장소에 대한 기억의 확산의 역사와 기억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개인이나 사람의 기억은 유산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유산은 각 사람들이 과거와의 관계, 그리고 확장되며 미래에 자신을 투영하는 방식을 증명한다. 개별 이야기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집단적 운명과 만난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역사 사이의 만남과 긴장감을 통해 증언에서 역사 소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키워드 : 국경 지역 / 전쟁 기념관 / 기념관 / 역사의 흔적 / 공식 역사 / 기억해야 할 의무 / 사면 / 기억 상실 / 역사 지구 / 건축 유산 ...

3. <현대언어> 교육과정과 유럽공통언어과정 CEFR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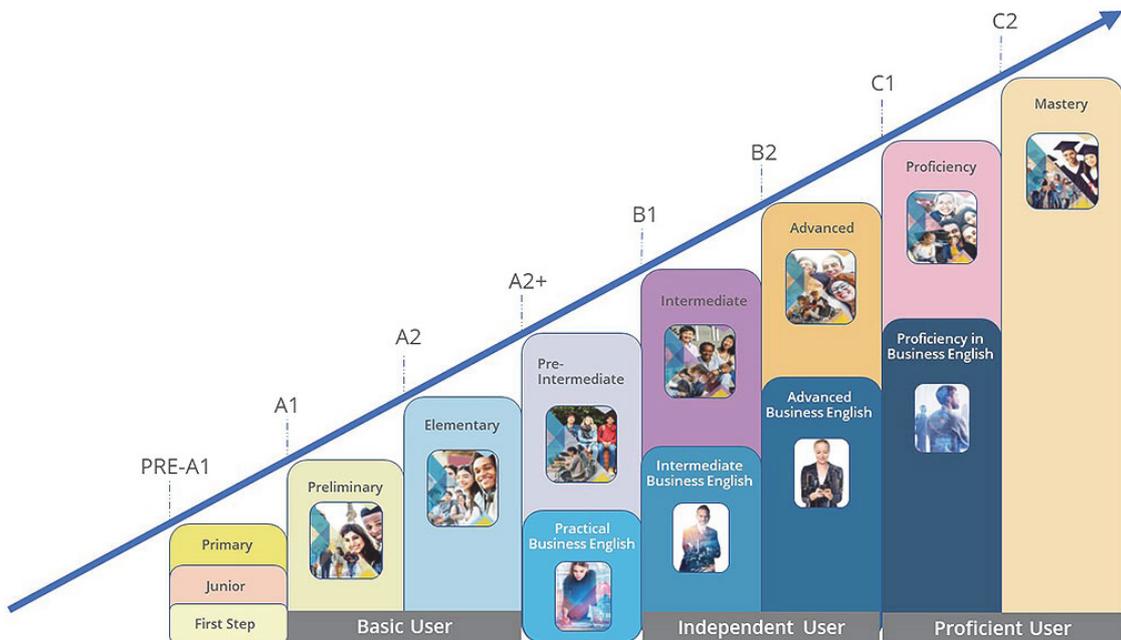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s://www.anglia.org/exams/cefr>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Learn, Teach, Evaluate)은 2001년 유럽 평의회에서 발행한 문서로, 여러 전문 분야의 노하우에 따라 외국어 능숙도 수준을 정의해놓은 시스템이다. 프랑스 및 유럽 대

부분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언어 학습 및 교육 분야의 기준이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현대 외국어 능력 수준으로 교육 코드에 포함된다. CEFR의 주요 혁신은 평가 기관과 독립적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구성된다. 특정 언어 국가 또는 조직에 특정한 다른 평가 시스템과 달리 일반적인 외국어 기준을 정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평가 기관이 평가 척도를 CEFR 수준에 맞추고 있다. 최근 한국 교육부의 한국어 채택 사업의 일환으로 교재를 만들 때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모든 학년에서 언어과목은 CEFR에 따른 정확한 성취기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https://www.education.gouv.fr/baccalaureat-2021-9269>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maternelle/>

이정미, [프랑스] 초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2019년 교육개혁정책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8&nTbBoardArticleSeq=819679>

프랑스의 수능, 바칼로레아를 풀어봤다 / [대학내일] https://youtu.be/OZ57sVY_oqY

서울대 인문학 교수가 프랑스에서 느낀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김현

<https://youtu.be/SJNpJfPOuA4>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노선주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장 / YTN KOREAN

<https://youtu.be/c1jziOLeFOA>

〈토론〉 “프랑스 내 한국어 채택 사업 현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대한 토론문

안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어 채택사업’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열기가 가장 뜨거운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의 성과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발표문을 읽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현지 교육 제도와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발표자께서 설명해 주신 프랑스의 언어교육과정의 목표 및 특징 등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연구의 목적으로 ‘프랑스의 한국어 채택사업의 골자와 프랑스어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특히, 현지 언어교육과정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는 데 목적을 가진 교재 제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셨는데 발표문만으로는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2019년 바칼로레아 제도 개편으로 1개 학교 외국어 교육 과목 제한이 이루어졌고, 이에 한국어교육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서술하셨습니다. 이런 난관을 해쳐나가기 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 개혁 전반 내용에 대해’ 살피며 ‘지식, 기술 및 문화 공통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발표문에서는 이 내용과 한국어교육과의 상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 드리며 외국어 교육 과목 제한에 따른 한국어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2020.12월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수는 총 45개이며 정규 수업(제 2,3 외국어, 한국어 국제색션)이 21개교, ‘한국 아틀리에’가 24개교라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3외국어와 한국어 국제색션의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국어 채택 학교의 절반이상이 아틀리에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한국 아틀리에, 아틀리에 꼬레앙, 방과후 수업’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적이나 학점을 주지 않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용어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이러한 수업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현재 프랑스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프랑스 한국교육원과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가 만든 ‘Apprenons le coréen!’과 같은 중등학교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이미 있고, 바칼로레아를 대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오래된 측면이 있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국교육원에서 유럽언어공통기준에 부합하고 현지 학생들의 상황에 맞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프랑스 언어교육과정(예를 들어, 정체성 및 교류, 사적 공간 및 공공 공간, 예술과 권력, 시민권과 가상 세계, 허구와 현실 등으로 이루어진 현대 언어 교육과정의 축)이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구

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이해가 부족하여 드린 질문이 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며,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진대연(선문대학교)¹⁾

1. 서론

한국어 교육계를 비롯한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류의 확산이라는 배경에 힘입어 최근 전 세계 각지에서 더욱 폭넓게 성장하고 있다. 1997년 시행 첫째 2,692명에 불과하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2019년 375,871명에 이르렀고(국립국어원, 2020), 한류동호회 회원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56,607,448명으로 추산될 만큼(한국국제교류재단, 2022) 한국어 학습자의 저변이 두터워졌다. 특히 최근에는 국외 40여 개국의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교육부, 2021)되어 아동 청소년 학습자의 수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초중등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1개교의 44개 학급에서 507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주독일한국교육원, 2022). 특히 2021년 8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 노이슈트렐리츠시의 카롤리눔 김나지움(Gymnasium Carolinum)이 인문계 중등학교 최초로 2021/22학년도부터 한국어를 의무선택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이러한 확장세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그간 방과 후 수업이나 한글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독일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이 독일의 제도교육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독일인의 한국어 학습은 1920년대에 『조선어교재문전(1923)』을 저술한 선교사 에카르트 이전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1950년대 초 구동독의 훔볼트 대학교와 1964년 이후 구서독의 보훔 대학교, 튀빙겐 대학교 등을 기반으로 한국학 차원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이 성장세로 돌아서기 전까지 독일의 한국어 교육이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1960-70년대에 파독된 광부와 간호사 그룹,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큰 역할을 하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학교와 몇몇 대학교의 한국 관련 학과가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 초중등학교가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한 축으로 부상하면서 독일 내 한국어 교육의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이 발표에서는 독일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전개를 되짚어본 후, 그동안 비정규 교육기관인 한글학교와 성인 대상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 교육이 정규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 향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타개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외국어 교육의 큰 틀로 삼고 있는 독일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교과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독일 초중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각론 차원의 관련 논의들을 촉진하고자 한다.

1)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부교수 겸 한국어세계화연구소 소장

2. 독일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전개

한국과 독일은 1883년 당시 조선과 독일 사이에 수호통상조약(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이 조인된 이후 140여 년간 교류를 이어 왔다. 그 기간 동안 양국의 관계는 주로 독일이 우위에 있었다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을 배우려는 독일인 보다는 독일을 배우려는 한국인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독일의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2010년대부터는 독일의 한국어 교육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 초·중·등학생 또는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맥락화하기 위하여 그간의 역사적 전개를 두 시기로 나누어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 188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인과 교류한 최초의 독일인은 17세기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중 조선의 소현세자와 친분을 나눈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신부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언어와 문자에 관해 연구한 최초의 독일인은 1818년 일본에 체류 중이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Karl T. Ernst von Sieboldt)로 알려져 있다(고영근, 1989; 현윤호, 2005). 그런데 양국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1883년을 전후해서야 독일인의 한국 방문과 체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²⁾ 이 즈음부터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한 1905년까지는 주로 외교와 통상 관련 인사들이 내왕을 하였지만 조선 정부가 1895년에 「외국어학교관계」를 제정하고 1898년 관립덕어학교를 설립하여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외국어교육)).

191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은 독일인 신부들이 한국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것이 주목할 만하다.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신부가 1911년 한국을 여행하면서 왕릉, 궁궐, 사당, 사찰, 교회, 학교, 병원 등의 건축물과 각종 풍속과 문물제도, 한국인의 일상, 정치·외교사와 교회사, 불교와 유교와 민간신앙, 한글과 인쇄술, 선교 현황과 그리스도교 신앙, 한국의 자연 등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라는 책으로 기록하였고 1925년 다시 방문하여 같은 제목으로 장편 흑백무성영화를 촬영한 바 있다.³⁾ 그리고 안드레아스 에카르트(Ludwig Otto Andreas Eckardt) 신부는 1909년부터 1928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와 경성제대 교수로 활동하던 중 1923년 독일인 대상의 한국어 교재인 『조선어교제문전(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을 간행하였고 1945년 뮌헨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친 독일 한국학의 선구자이다.

한편 당시 독일에서 활동한 한국인으로는 1901년 초대 주독공사로 부임했던 민철훈, 1920년 망명하여 1928년 뮌헨 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미륵, 1936년 베를린에서 태극기를 걸어 놓고 손기정의 올림픽 우승을 축하해 준 안봉근,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초까지 독일 등지에서 음악 활동을 한 안익태, 1957년부터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동아시아와 서양의 음악을 접목해 독자적인 계보를 구축한 윤이상 등 외교관, 유학생, 망명객, 음악가들이 있다. 이 중 이미륵은 1946년 『Der Yalu Flie Bt(암록강은 흐른다)』라는 자전적 소설로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1947~49년에는 뮌헨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독일인들에게 한학(漢學), 한국어, 한국문학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다.⁴⁾

2) 흥선대원군과 통상교섭 문제를 흥정하려는 목적으로 1868년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 했던 오페르트(Ernst J. Oppert)와 1882년 입국해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서양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 등에서 역할을 하였던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사례를 들 수 있다.

3) 이 영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BS에서 2010년 2월 21일 방송한 <독일의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신부, 100년 전 조선을 촬영하다>(https://www.youtube.com/watch?v=CPEAifC4zQ)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는 동베를린 지역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한국학 교육의 토대가 마련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51년 하인리히 융커(Heinrich F. Junker) 교수가 동양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구조와 문법, 음운론적 특징에 대해 강의한 것을 발판으로 1954년부터 한국어가 전공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59년 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융커 교수가 1955년 동독에서 최초로 한국 및 한국어를 다루는 『한국학(Koreanische Studien)』을 발간하였고 훔볼트 대학교는 구동독의 한국학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1990년 통독 이후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전공 통합 논의 결과 1998년 베를린의 한국학 거점이 후자로 옮겨지기로 결정되면서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현운호, 2005: 395).

2.2.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독일에서 한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그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한 것은 1960년대에 이루어진 광부와 간호사 파독 이후로 볼 수 있다. 1963년 12월 21일 1차로 광부 123명이 출국한 것을 시작으로 1978년 11월까지 8,395명의 광부가 구서독으로 나가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371명의 간호사가 파독(이희용, 2018: 211~215)된 것을 계기로 형성된 재독동포 사회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독일 한국어 교육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독일 내 한글학교는 1973년 루르 공업지대의 쾰른과 아헨을 필두로 1970년대에 독일 각지에서 13개교가 문을 열었고(현운호, 2005: 400) 한때 36개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심제택, 2004; 김영자, 2011). 2022년 현재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32개교인데 50여 년간 재독동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중추 기능을 하였다.

한글학교가 동포사회에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던 데 비해 학문으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1964년 보훔 대학교와 튀빙겐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 개설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0-80년대에 본 대학교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등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열리게 되었으며 1980-90년대에 튀빙겐 대학교, 함부르크 대학교, 본 대학교에 한국학과와 한국학연구소가 설치되면서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당시 한국학 교육의 주역으로 활동한 아이케 마이어(Dieter Eikemeier) 교수, 자쎄(Werner Sasse) 교수, 후베(Albrecht Huwe) 교수는 보쿰 대학교에 재직하였던 레빈(Bruno Levin) 교수의 제자였다(Huwe, 2006: 640).

2000년대에 들어서는 1964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1981년부터 한국학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독일에서 한국학 연구의 맥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튀빙겐 대학교의 한국학과가 2003년 폐과되기도 하는 등 독일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에서 다소간의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한-독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독일 대학의 한국학과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었고 2010년대 이후 반전(反轉)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한때 문을 닫았던 튀빙겐 대학교 한국학과와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10여 년간 전공 학생이 0명에서 399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한국학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며 2012년에 세종학당이, 2018년에 한국학과와 한국학센터가 설립되면서 확실한 성장세로 돌아섰다.

2010년 전후부터는 한국 정부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독일에서도 한국교육원이 독일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지원해 왔으며 이는 독일에서 초중등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09년 방과 후 수업으로 2개 학교에서 19명의 학생이 참여함으로써 독일 초중등학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2013년 비스바덴의 빌헬름 로이쉬너 종합학교에서 5, 6학년 대상의 한국문화 중심 수업으로 한국어 의무선택 과목 채택의 물꼬를 텃으며 2021년 인문계 중등학교 최초로 카롤리눔 김나지움에서 한국

4) 이 문단은 발표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백과사전, 신문기사, 유튜브 등의 누리집을 참조하였는데 각각의 인용 출처는 생략하고자 한다.

어를 의무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였다.⁵⁾ 그리고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독일 각지의 31개교에서 44개의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다.

3.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확장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동포 아동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교와 독일 교육제도에 따라 의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현지 거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주요 목적은 한민족 후예의 정체성 함양인 데 비해 현지 거주 아동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동포 아동 청소년도 현지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큰 틀에서 동일한 점도 있지만 한글학교 교육이 정규학교 교육으로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두 유형의 목표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현황

한글학교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서 한글학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글학교 지원은 재외동포의 모국 유대감 강화와 정체성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 범위는 한국어 이외에도 문화, 역사, 음악, 미술, 한자, 수학, 사회, 외국어 등 폭넓게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 시간은 주당 두세 시간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의미의 한국어 교육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한글학교는 동포사회 내 또는 동포사회와 한국의 매개 역할로 동포 아동 청소년의 뿌리교육을 담당하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독일 한글학교의 초등반 교육과정 및 실제 학습 현황(Koh, 2014)’에 따르면 한글학교의 교육 목표는 동포 학생들이 한국어, 한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차 한국과 독일과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다. 초등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의 기초, 기본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초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1급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어의 문자 구조 및 언어체계를 익혀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학습 흥미와 의욕을 갖는다.
- 한국의 역사적 기원 및 각 시대별 주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민속놀이의 종류를 알고 참여 방법을 익혀 즐겁게 참여한다.

5) <도이칠란트 김나지움에서 한국어 의무선택 과목 최초 채택(우리뉴스, 2021. 9. 15.)>

<https://www.uri-news.de/2021/09/15/gymnasium-carolinum-koreanisch-unterricht>

독일의 한글학교는 유아,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과 한국어 수준의 학생들이 재학한다. 그 중 초등 교육과정은 독일 학제에 근거하여 유치원생인 만 5세부터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9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기초·기본 교육을 통합 운영한다. 특별 활동은 태권도, 전통예술 등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며 행사 활동은 학예회, 체육대회, 설, 추석 등 각종 교내 행사로 구성한다. 그리고 수업 시수는 연간 최소 34주, 6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수업은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 45분을 원칙으로 한다.

3.2. 정규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현황

독일의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곳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31개교인데 대부분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가 속한 헤센 주에 소재한 학교가 12개교로 가장 많으며 루르 공업지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재 학교가 6개교,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지역 학교가 6개교로 대대수를 차지한다. 수업은 한국어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는데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공유한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브리엘레 폰 빌로우 김나지움에서 케이팝 수업 (2022-05-13)
- 독일 한국어반과 서울대 독어교육과 온라인 탄뎀 첫 모임 (2022-04-01)
- (루이젠 김나지움) 선배들이 들려주는 한국어 수업 꿀팁 정보 (2022-03-25)
- 딜타이슐레 상감청자 기법 도예 수업 실시 (2022-03-22)
- 베를린 실러 김나지움 한복 체험 수업 (2022-03-08)
- 루이젠 김나지움 2021년 UCC 제작대회, 그리기 대회 시상식 (2022-02-08)
- 프리드리히 베르키우스 중등학교 독일학교 학생 대상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시상식 (2022-02-04)
- 마리쿠리 김나지움 독일학교 학생 대상 UCC 제작대회 우수상 시상식 (2022-02-04)
- 카롤리눔 김나지움 독일학교 학생 대상 UCC 제작대회 장려상 시상식 (2022-02-04)
- 마리 쿠리 김나지움 프로젝트 주간 및 학교 개방의 날 행사 (2022-02-03)
- 카롤리눔 김나지움 학교 개방의 날 행사 (2022-02-03)

독일은 교육에서 각 주 정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단순화해서 제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연방 차원에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외국어 교육의 큰 틀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0~21년에 한국 교육부의 주도로 개발한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의 등급과 내용 체계에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 자신의 언어뿐 아니라 둘 이상의 언어와 문화 레퍼토리를 구축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시각을 활용
- 한국어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맥락에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자신의 언어적, 사회언어적, 화용적 능력 등 의사소통 언어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활용
- 다중언어 및 다중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매개와 상호작용을 주도

-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상호문화적 관점의 태도를 기를 수 있음

그러나 한국어를 의무선택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카롤리눔 김나지움과 로이쉬너 종합학교에서도⁶⁾ 주당 수업 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육부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Pre-A1, A1, A2, A2+ 수준 도달을 목표로 능력 기술문을 상세화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재가 범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지 아동 청소년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4.1. 교육 내적 측면

교육은 목적, 대상, 환경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의 정규교육(방과 후 교육 포함)을 구성할 때도 한국의 시각보다는 현지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 특히 국내 한국어 교육계에서 소위 ‘Korean Dream’을 가지고 찾아오는 국가 출신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축적하였던 경험은 독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를 들면 2020년과 2021년에 개발된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는 주로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범용 성격의 교육과정과 교재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교재와 더불어 교사는 학습자가 직접 접하는 교육과정의 구현체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소양을 쌓은 교사는 현지의 외국어 교육 전통과 학습 스타일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교사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야 한국어 교육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분위기로 볼 때 독일에서도 향후 더욱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방과 후 수업이나 의무선택 교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기회가 오히려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독일 아동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자질을 고루 갖춘 교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사 모집 조건(정확히 말하면 강사 인재풀 등재 안내) 중 강사 지원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독일한국교육원은 독일 중등학교의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 바랍니다.”

□ 강사 지원자격⁷⁾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로서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 독일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 * 한글학교, 대학, Volkshochschule 등에서 한국어 수업 유경험자 환영

6) 이 두 학교의 경우에도 한국어가 정규 교과목이 되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제3외국어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7) 참고로 지원 조건 및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일학교 한국어반 개설조건: 학급당 7명 이상, 2) 강사지원: 수당(45분 기준 1시간당 €30), 참고자료 등, 3) 학생지원: 특정 교재 사용 시 최초에 한하여 지원, 4) 개설학교 홍보행사 지원: 강사비 및 재료비(단 일상수업 재료비는 학교 또는 수강학생 부담), 5) 강사 연수: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실시

주독일한국교육원에서 방과 후 수업 지원을 하는 목적은 독일 중등학교 학생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수업으로 독일 내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어의 독일학교 정규과목 편입 및 아비투어(Abitur) 제2외국어 과목 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업 분야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K-Pop, 종이접기, 서예,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 관련 활동의 특별수업으로 구성된다.

4.2. 교육 외적 측면

최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K-Pop 공연과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가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볼 때 독일도 이제는 한류의 영향권 안에 들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아시아의 한 국가인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대단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 규모, 인지도 등에서 세계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전쟁 경험과 남북분단 상태로 인해 ‘전쟁을 경험한 개발도상국 이미지’가 오랫동안 그들이 바라보던 한국의 모습이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부정적이었거나 자료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성공이라는 두 가지 요인만 보고도 한국을 찾아오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국가 출신의 학습자와 독일의 학습자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독일은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이자 한국보다 훨씬 앞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중시했다는 점이 독일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고 한다. 또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이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도 독일에서 한국을 달리 보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분명 이러한 점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를 다 배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인들 특히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매력적인 언어로 여기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답은 한류를 비롯한 ‘문화의 힘(soft power)’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카를리눔 김나지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K-Pop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e-sports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승을 많이 해서’ 등과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⁸⁾ 다음에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독일인의 응답 중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8) <독일이 한국어를 의무교육으로 채택해 버리자 훈남 고등학생이 남긴 한 마디>(2022년 5월 11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ygzFnpGjepY>

〈그림 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해외문화홍보원, 2022: 307)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6)	(244)	(61)	(113)	(131)	(124)	(71)
경제	53.8	66.0	41.0	34.4	48.7	58.0	50.8	76.1
현대문화	53.2	52.7	53.7	57.4	59.3	53.4	50.0	45.1
문화유산	51.0	47.3	54.9	60.7	44.2	53.4	50.8	49.3
안보	48.2	49.2	47.1	42.6	47.8	49.6	42.7	60.6
정치/외교	32.0	33.6	30.3	26.2	35.4	34.4	25.8	38.0
스포츠	32.0	31.6	32.4	27.9	29.2	24.4	38.7	42.3
사회	26.6	28.1	25.0	26.2	28.3	29.8	23.4	23.9

〈그림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해외문화홍보원, 2022: 308)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6)	(244)	(61)	(113)	(131)	(124)	(71)
방송	59.8	62.5	57.0	54.1	57.5	61.8	62.1	60.6
온라인	49.8	55.1	44.3	55.7	67.3	58.0	36.3	25.4
신문/잡지	46.4	49.2	43.4	34.4	39.8	49.6	43.5	66.2
지인들	26.2	24.2	28.3	29.5	32.7	31.3	21.0	12.7
관광안내서	18.8	17.6	20.1	6.6	17.7	26.0	17.7	19.7
관련기관	11.0	12.5	9.4	4.9	11.5	20.6	7.3	4.2
여행사	8.4	9.0	7.8	4.9	10.6	13.0	7.3	1.4
학교/강좌 교육	8.0	7.0	9.0	21.3	10.6	3.8	5.6	4.2

〈그림 3〉 세부 분야별 인지도 Top 10(해외문화홍보원, 2022: 309)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6)	(244)	(61)	(113)	(131)	(124)	(71)
대중음악(K-Pop)	44.6	43.4	45.9	70.5	58.4	41.2	29.0	33.8
한국음식	43.6	39.5	48.0	52.5	42.5	43.5	38.7	46.5
영화	35.4	34.8	36.1	42.6	35.4	40.5	32.3	25.4
남북관계	32.2	34.0	30.3	42.6	23.9	29.0	30.6	45.1
한국산 제품/브랜드	30.0	32.0	27.9	16.4	21.2	28.2	28.2	62.0
한국전쟁	30.0	31.6	28.3	44.3	23.0	23.7	28.2	43.7
패션	24.6	24.2	25.0	39.3	31.9	24.4	15.3	16.9
정치상황	24.4	27.3	21.3	24.6	13.3	28.2	25.0	33.8
역사	23.4	25.0	21.7	18.0	16.8	24.4	18.5	45.1
뷰티	20.4	14.1	27.0	27.9	27.4	20.6	16.1	9.9

〈그림 4〉 관심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Top 10(해외문화홍보원, 2022: 311)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6)	(244)	(61)	(113)	(131)	(124)	(71)
대중음악(K-pop)	26.0	24.6	27.5	39.3	35.4	28.2	16.1	12.7
음식	18.6	18.0	19.3	9.8	11.5	18.3	27.4	22.5
영화	17.6	19.1	16.0	9.8	16.8	21.4	16.1	21.1
게임	7.0	10.9	2.9	3.3	11.5	7.6	6.5	2.8
패션/뷰티	5.8	2.3	9.4	9.8	6.2	3.1	5.6	7.0
스포츠	5.0	5.1	4.9	6.6	1.8	3.8	7.3	7.0
전통음악/국악	3.4	2.3	4.5	3.3	1.8	2.3	5.6	4.2
드라마	3.2	3.1	3.3	0.0	6.2	2.3	4.8	0.0
애니메이션/웹툰	3.2	3.9	2.5	6.6	3.5	3.1	2.4	1.4
전통공예	2.6	2.0	3.2	1.6	0.9	1.5	2.4	8.5

〈그림 5〉 분야별 호감도(해외문화홍보원, 2022: 314)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현대문화	긍정률	73.6	77.5	69.4	83.1	75.7	76.7	65.0	71.0
	평균	3.96	3.98	3.94	4.15	3.94	4.04	3.84	3.91
문화유산	긍정률	73.3	74.9	71.5	72.4	68.8	76.7	68.0	83.8
	평균	3.95	3.99	3.91	4.03	3.88	4.00	3.84	4.07
경제	긍정률	69.9	79.0	60.1	64.9	64.2	74.2	66.1	81.2
	평균	3.88	4.03	3.72	3.75	3.83	3.91	3.84	4.07
안보	긍정률	44.9	55.2	33.9	31.6	49.1	45.2	49.6	40.6
	평균	3.31	3.50	3.10	2.93	3.36	3.37	3.43	3.22
정치/외교	긍정률	54.1	67.2	40.1	37.0	55.6	63.0	50.0	55.9
	평균	3.54	3.81	3.26	3.20	3.51	3.69	3.54	3.59
사회	긍정률	59.8	67.1	52.0	43.4	64.5	66.4	55.4	60.6
	평균	3.65	3.79	3.49	3.32	3.62	3.82	3.64	3.62
스포츠	긍정률	70.5	75.4	65.0	71.4	68.9	78.4	62.7	71.2
	평균	3.85	3.91	3.79	3.80	3.81	3.98	3.76	3.86

5. 결론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70여 년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독일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눈으로 볼 때 기적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 한국과 독일의 관계는 1883년 이래로 이미 140년이 되어 간다. 그런데 그 기간 중 대부분은 독일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은 한국에 다양한 분야의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한국도 전후 유럽의 주요국으로 재도약한 독일을 경제 발전의 역할 모델(role model)로 인식해 왔다. 그와 더불어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는 한국인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에서도 한국 문화가 매력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독일인들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독일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독일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전개를 되짚어본 후, 그동안 비정규 교육기관인 한글학교와 성인 대상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 교육이 정규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기술하고, 향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타개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 비해 현재와 미래에 관한 논의가 다소 성기게 전개된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임무로 여겨진다. 다만 이 발표가 향후 독일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교과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독일 초중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각론 차원의 관련 논의들을 촉진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 고영근(1989), 지볼트의 한국기록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교육부(2021),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 김영자(2011), 재독 동포의 이민과정과 현주소, 그리고 독일에서 한국어교육의 현황,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전남대학교.
- 심제택(2004), 독일에서의 한글 교육, 이중언어학회 제1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 이희용(2018), 세계시민 교과서, 라의눈.
- 한국국제교류재단(2022), '2021 지구촌 한류현황 분석' 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 해외문화홍보원(2022), '2021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해외문화홍보원.
- 현윤호(2005), 독일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론 3, 한국문화사.
- Huwe, A.(2006), 독일의 한국학 연구, 교육 및 발전에 대한 보고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Koh, M.-I.(2014), 독일 한글학교의 초등반 교육과정 및 실제 학습 현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4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가톨릭신문 '[중국교회 역사이야기] (5) 독일 아담 샬 신부와 조선 소현세자의 만남'(2021. 05. 30.)(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57907).
- 국립국어원(2020), '세계 속 한국어, 어디까지 왔니?', 국어정책통계(<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2805>).
- 주독일한국교육원(<https://www.keid.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0360>).

〈토론〉 “독일 초중등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진경(건양사이버대학교)

이 발표문 덕분에 독일에서의 세계 언어 속의 한국어, 독일 이민 2세대들의 한국어 교육, 독일인을 위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까지의 통시적 흐름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한국어교육에서 있어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발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1960년 이후의 파독 간호사, 광부들의 이주와 정착은 이민 2세대의 이중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근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류 및 한국의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독일에서의 초중등학습자의 증가로 인해 학습자 연령이 다양해지고 학습자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전개와 학습자 따른 정규 교육으로의 진입 등은 한국어교육계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발표자께서는 독일에서의 한국어교육이 더욱 현지에 맞는 교육내용, 교재, 교수방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공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의 교육은 지역화를 기반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독일 초중등학생 정규교과로서의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재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독일 초중등학생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교육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정보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류 및 한국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민 2세대의 성인학습자(독일 이민 2세대의 특성에 기반한 학습자들)들의 한국어교육의 요구도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변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독일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특성 및 한국어교육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와 관련하여 유럽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독일 한국어교육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